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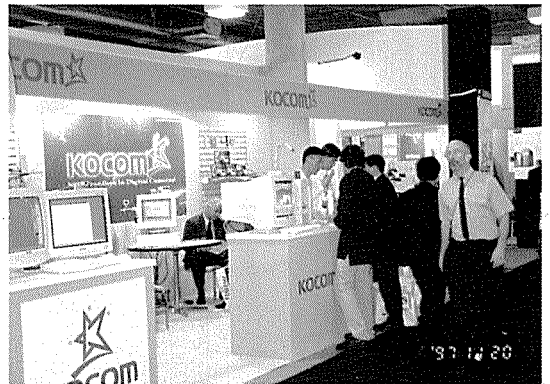
진흥회 활동

COMDEX Fall '97에 한국공동관 설치



본회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경쟁력있는 최첨단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인력, 자금 및 해외 전시경험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공통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상호 협조와 보완을 통해 상품의 홍보 및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시범적으로 11.17~21까지 5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OMDEX Fall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였다.

이번 COMDEX Fall에 한국공동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이 전시회가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이며 내년에 선보일 신제품들의 경연장으로써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함에 따라 우리 제품을 널



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의 한국공동관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망 정보통신기업 및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드웨어기업이 16개사 26개 부스, 소프트웨어기업이 10개사 12개 부스 등 총 40개 부스로 참가하게 되어 그동안 설치되었던 한국공동관 중 최대 규모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등의 후원으로 관련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부분품 및 재료 등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출품품목을 보면 LCD 모니터, 디지털 스틸 카메라,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화상회의시스템 등의 첨단 제품에 더불어 디지털 마우스, CCD카메라, 멀티미디어 스피커, 56Kbps 모뎀, 디지털 보

이스 레코더 등의 부분품들이 전시되었으며, 메인보드 FAST ETHERNET CARD, WIRELESS PCMCIA LAN CARD, MPEG-2 ENCODER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보드 및 카드 제품도 선보였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넷 및 인트라넷 솔루션, 3D 탐색 엔진, 인터넷 콘텐츠,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전시되었다.

한편, 본회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상담 효과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상담실과 인포메이션을 설치하고 상담요원과 도우미를 배치하여 바이어의 안내와 상담 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공동브로셔 제작 및 국내외 각종 매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펼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아취 등 홍보 구조물과 예술성과 조형미를 강조한 부스 디자인으로 바이어의 시선을 끌었으며 이외에도 운송·통관절차 지원, 항공 및 숙박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예약하여 우리 기업들이 전시회를 참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다.

이번 전시회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였고, 예상외의 많은 실적을 올렸다.

금번 한국관 전시결과 총 상담액은 91,428천불, 계약총액은 7,020천불로 최종 집계되었다.

〈COMDEX FALL '97한국공동관 상담실적 결과〉

(단위 : 천불)

구분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누계
상담실적	15,392	16,045	23,205	18,500	18,286	91,428
계약실적	2,200	690	2,410	300	1,420	7,020

국가별로는 미국의 상담액이 약 4,200만불, 계약액이 약 400만불로 전체의 상담액 91,428천불 중 46.4%, 총 계약액 720만불 중 61.4%의 비중을 나타냈었으며, 독일의 상담액도 약 800만불로 나타났

으며 수출 신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는 멕시코의 상담액이 794천불, 칠레 375천불, 브라질 125천불, 아르헨티나 63천불로 나타났으며 추후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담액이 500천불, 이집트 375천불, 터키 312천불로 집계되어 세계 각국에서 금번 한국공동관에 출품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본회에서는 또 내년도 COMDEX FALL '98 한국공동관을 올해 4천평방피트의 두배가 넘는 일만 평방피트의 규모로 내년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COMDEX 주최자 대표인 제이슨사장과의 미팅을 통해 전시장의 위치도 샌프란시스코의 메인인 되는 2층전시관으로 공동관의 위치를 확정하였다.

또한 내년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최첨단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인력·자금 및 해외전시경험부족 등으로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수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공동으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 지원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98년도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세미나 개최



최근의 우리 전자산업은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일련의 대기업 부도 여파와 산업

구조 조정 가속화, 급격한 환율변동 등 대내외적인 기업경영 환경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우리 전자업계의 '98년도 경영계획수립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전자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정보산업 경기 전망조사 결과와 관련분야 시장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중심으로 『'98 전자정보산업 경기 전망세미나』를 지난 12월 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전자업계 대표 및 경영기획 담당임직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세미나 진행순서로는
- 조찬(07:30~08:00)

- 인사말씀
 - 본회 부회장

- 주제발표(08:00~10:30)

* 주제별 발표시간: 각각 20분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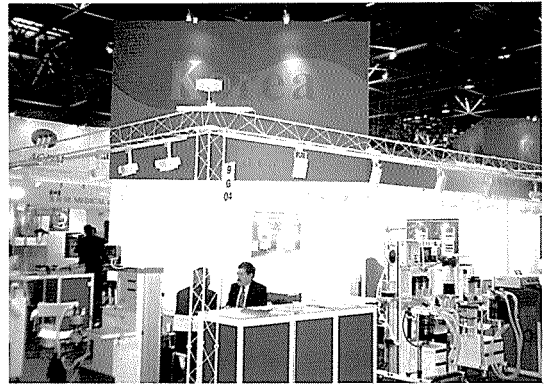
- 전자산업의 최근동향과 '98년 전망(본회 박재인 상무)
- 가전산업 전망(대우전자(주) 주영섭 이사)
- 컴퓨터산업 전망(삼보컴퓨터(주) 정철 부사장)
- 통신산업 전망(대우통신(주) 김수영 상무)
- 반도체산업 전망(LG반도체(주) 김양규 이사)
- 전자부품산업 전망(삼성전기(주) 조경수 이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전자진흥 1월호.

“독일 MEDICA '97전시회에서 국산 전자의료기기 진가 발휘!”

본회 전자의료기기 산업협의회에서는 국산 전자의료기기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기 전시회인 MEDICA '97전시회('97. 11. 19-11. 22)에 중소기업 중심의 한국공동관을 설치하여 많은 바이어로 부터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확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공동관은 메디슨, 한신메디칼, 로얄메디칼, 자원메디칼 등 총 10개사 120m²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계약 목표액은 '96년도 2,253천불에서 약 10%상향한 250만불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막 첫날인 11월 19일만 약 81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리는 등 수출계약 목표를 재수정하여 전년대비 37%높인 310만불을 최종 목표로 하여 국산 전자의료기기 홍보 및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동 전시회의 성격은 방사선 진단기기를 제외한 전자의료기기, 주사기, 병원침대 등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품목을 전시하는 세계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전세계 45개국 2,346개업체가 참가하였으며 국가별 업체수는 독일이 1,053개업체, 미국 120개업체, 이태리 130개업체, 영국 103개업체 등 참가하였으며 독일을 제외한 그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한국공동관 처럼 국가 공동관 형식으로 대거 참가하는 등 국가 이미지의 시너지효과에 힘입어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다.

한국공동관의 대표적인 출품품은 초음파진단기(흑백, 칼라, 3차원), 마취기, 소독기, 전자혈압계, X-Ray필름 현상기 등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전자의료기기로 구성되어 전시하였으며 금년 처음 참가한 대신엔터프라이즈(레이저수술기), 협신메디칼(자동 약포장기), 한마이크로텔레콤(요실금 치료기) 등 3개사에서도 많은 바이어가 참관하여 수출상담을 하였다.

금년 한국공동관의 실적중 수출상담액은 17,672

천불, 수출계약액은 6,663천불로 이는 국내 및 동남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불황으로 인하여 참관객이 줄어들고 의료기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크나큰 성과라 볼 수 있다.

한국 공동관의 주 고객인 중동, 북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CE마크를 획득한 한신메디칼, 자원메디칼, 정원정밀 등은 독일, 이태리 등 EU국가의 바이어가 대거 몰려와 수출계약을 하러 전시장이 아닌 외부장소까지 협의하는 등 국제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대체적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메디슨은 한국공동관과 함께 별도로 약 200m²의 규모로 자사 관련업체(메리디안, 메디페이스, 인포피아, 바이오시스 등)와 전시관을 설치하였으며 이외 세인전자, 영동제약, 우영메디칼, 닥터리 등 4개사가 별도로 참가하여 국산 전자의료기기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유럽시장진입에 교두보를 확보키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는 내년에 더 많은 업체를 참가 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KOTRA 등과 협조하여 내년도 MEDICA '98 전시회 및 브라질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제조업체에게는 참가비용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진흥회에서 확보한 해외개척기금으로 참가업체에게 장기저리(년리 4%)로 융자해 줄 계획 등 국산 전자의료기기가 세계 속의 전자의료기기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독일 MEDICA '97 한국공동관 참가업체는 다음과 같다.

- 메디슨 : 초음파진단기(흑백/칼라/3차원)
- 한신메디칼 : 소독기, 혈액냉장고, 원심분리기 등
- 로알메디칼 : 마취기
- 협신메디칼 : 약 자동 포장기
- 자원메디칼 : 소형 및 병원용 전자혈압계
- 정원정밀 : X-Ray필름 자동현상기 등
- 대화기기 : 인퓨션 펌프, 전기수술기
- 정상테크노 : 인퓨션 펌프
- 대신엔터프라이즈 : 레이저 수술기
- 한마이크로텔레콤 : 요실금 치료기

리콜제 관련 회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리콜제 관련하여 지난 21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주요내용으로는 리콜제 관련 법규정비, 전담조직 구축 등 준비가 미흡하고 대상품목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등 업계의견 반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의 경제 악화로 인한 경영 전반의 여건 악화로 인해 업계 파급 영향이 너무 큼(리콜 적용 대부분의 중소기업 도산 우려)에 따라 리콜제도 도입시기를 유보토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한 통상산업부, 산업연구원을 대상으로 리콜제 도입에 따른 업계 입장을 설명키로 합의하였다.

주계 체력단련 회의



본회는 지난 11월 7, 8일 양일간 소백산에서 직원들의 주계 체력단련대회를 가졌다. 이날 직원들은 그동안의 업무의 피로감을 말끔히 씻어내고 보다 나은 업무향상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진흥회 11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11. 4	세탁기 표준화 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 전 과
11. 4	리사이클링 추진 위원회	가전3사 물류담당 임원(팔레스 호텔)	환 경 과
11. 4	캠코더용 캡스턴 모터 표준화 회의		부 품 과
11. 5	특소세 관련회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가 전 과
11. 5	자본재 표준화 중간 보고		부 품 과
11. 6	기자간담회(전자정보산업증장기 전망)		기 획 과
11. 6	COMDEX Fall '97 한국공동관 참가 업체 회의	한국통신 등 참가업체 22개사, 정보기술연구 원 등 6개사(본회 10층 회의실)	정 보 산 업 과
11. 6	셋트업체 구매부서장 회의(구매계획세미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부 품 과
11.7~11.8	추계 체력단련 대회	본회 전직원(소백산, 단양구인사)	총 무 부
11.14	냉장고 표준화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가 전 과
11.17	'OECD 다자간 투자협정과 한국경제의 진로' 정책 토론회	전경련	국 제 부
11.17~11.21	COMDEX Fall '97 한국공동관 참가	동방음향 등 26개사(미국 라스베가스)	정 보 산 업 과
11.18	형명등록시스템 설명회	삼성전관, 삼성코닝, LG전자 오리온전기, 한국전기초자(본회 10층 회의실)	형 명 등 록 과
11.19~11.22	MEDICA 한국 공동관	메디슨 등 10개사(독일 뒤셀도르프)	산 업 전 자 과
11.21	리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업계 대책회의	대우전자, LG전자, 삼성전자	가 전 과
11.21	KES '97 평가회의	LG전자, 대우전자 등 5개사(10층 회의실)	국 제 부
11.21	전기통신 설비기술 기준개정안에 대한 회의		산 업 전 자 과
11.26	팩스 반덤핑 대책회의	닉소텔레컴, LG전자, 대우통신, 광전자INT, 신도리코, 태일미디어, 삼성전자	국 제 부
11.26~11.28	경쟁력 강화기반 기술 개발사업	싱거스텍 등 13개사	정 보 산 업 과
11.27	가전업계 영업부서장 회의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가 전 과
11.27~11.28	IEC TC-39 WG1 실무위원회 및 음극선관 기술표준화 워크샵	삼성전자, 삼성코닝, LG전자, 오리온전기, 한국전기초자(국제 특허연수원 회의실)	형 명 등 록 과
11.28	KES '97내부평가회의		국 제 부
11.28	초음파 변환기 표준화 회의	메디슨, 대원전자, 부품연구소	부 품 과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회 사 명	창립연월일
동 광 센 서 공 업 (주)	1986.12. 1	성 문 경 밀 (주)	1989.12.15
(주) 파 위 코 리 아	1993.12. 1	세 진 전 자 (주)	1972.12.20
삼 협 전 자 공 업 (주)	1979.12. 4	삼 성 코 닝 (주)	1973.12.20
(주) 한 국 컴 퓨 터 테 크	1985.12. 6	(주) 국 계 상 사	1949.12.21
현 대 중 합 상 사 (주)	1976.12. 8	(주) 정 화	1968.12.21
(주) 한 마 이 크 로 텔 레 콤	1996.12. 9	(주) 남 성 텔 레 콤	1976.12.21
삼 화 전 기 (주)	1973.12.10	(주) 한 림 전 자	1980.12.22
대 영 전 자 공 업 (주)	1968.12.11	신 성 전 자 정 밀 (주)	1985.12.24
(주) 엔 케 이 텔 레 콤	1963.12.12	태 광 산 업 (주)	1963.12.26
(주) 행 성 사	1979.12.12	(주) 연 우 어 엔 티	1996.12.26
화 인 계 기 (주)	1986.12.12	한 국 동 양 유 전 (주)	1976.12.28
마 하 전 자	1987.12.15	(주) 동 아 일 렉 콤	1976.12.29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

▶ 모토로라코리아(주) - 대표이사, 사옥이전 -

- 변경전 -

- 대표자 : 윌리엄 제이미더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45
- TEL : (02)450-6114
- FAX : (02)458-5791

- 변경후 -

- 대표자 : 모한 워리어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77 문발 제2공단

- TEL : (0348)940-0345
- FAX : (0348)940-0610

▶ (주)유양정보통신 - 사옥이전 -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7층
- TEL : (02)589-3500
- FAX : (02)589-3570

▶ (주)유신전자공업(주) - 사옥이전 -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692-2